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338호 [루게 제23290호] 주체99 (2010)년 12월 4일 (토요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한마음
한뜻으로 받들어나가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무산광산연합기업소와 무산식료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무산광산연합기업소와 무산식료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합경북도위원회 책임비서 오수용동지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들인 김기남동지, 홍석형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장인 김경희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인 장성택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들인 박도훈동지, 태종수동지, 국방위원회 국장들인 현철해동지, 리명수동지가 동행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현지에서 무산광산연합기업소 지배인 김용광동지, 무산광산연합기업소 당위원회 책임비서 차종범동지, 무산군당위원회 제2비서 진동수동지, 무산군인민위원회 위원장 강영주동지를 비롯한 련합기업소와 군, 공장의 책임일꾼들이 맞이하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을 또다시 자기들의 일터에 모시는 크나큰 영광과 행복을 지니게 된 무산군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가슴은 끝없는 감격과 환희로 설레이고있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먼저 무산광산연합기업소를 현지지도하시였다.

당창건 65돐과 력사적인 당대표자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빛나는 로력적성파로 맞이한 승리자의 기세드높이 올해의 마감전투를 힘있게 벌리고있는 광산의 로동계급은 끊임없는 생산적양양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무산의 광부들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지난해 2월 광산에 찾아오시여 주신 전투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힘찬 투쟁을 벌려 대형과쇄장을 새로 건설하고 수천mm의 벨트콘베아를 설치하여 박도처리능력을 4배이상으로 높이였으며 광물생산을 1.5배로 끌어올리는 성과를 이룩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세찬 눈보라를 헤치시며 높은 산정에 위치한 대형과쇄장에 오르시여 건설정형과 생산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집재같은 대형원주형과쇄기의 작업모습과 분쇄된 박도들이 줄줄이 뿜어간 벨트콘베아를 타고 쉬임없이 처리장으로 흘러가는 장쾌한 광경을 보시면서 무산광산에서 또 하나의 현대적인 생산공정을 훌륭히 꾸려놓은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최신식설비들로 장비된 능력이 큰 대형과쇄장까지 일떠선 결과 무산광산은 굴지의 대광물생산기지로서의 체모를 더 잘 갖출수 있게

되였다고 하시면서 짧은 기간에 건설공사를 성과적으로 끝낸 일꾼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의 공로를 높이 평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당과 혁명에 무한히 충직한 무산의 광부들이 우리 나라 금속공업의 생명선을 지켜섰다는 사명감을 안고 지난 기간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제철소들에 질 좋은 철정광을 충분히 생산공급함으로써 주체공업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하시면서 그들의 빛나는 위훈은 부강조국사에 자랑스럽게 아로새겨져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당의 부름에 산악같이 일떠선 무산의 광부들이 대고조의 앞장에서 련일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고 있는데 대해 매우 기뻐하시면서 이 자랑스런 성과는 일편단심 당을 따라 준엄한 혁명의 시련을 순간의 주저와 동요를 모르고 승려적으로 헤쳐온 믿음직한 우리 로동계급의 불굴의 의지와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투쟁정신이 낳은 고귀한 결실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광산의 로동계급이 사철 엄혹한 자연환경속에서 일하지만

언제나 애국의 열정으로 가슴을 끓이며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해 순결한 량심과 헌신적인 노력을 아낌없이 바쳐오고있다고 하시면서 그들의 비상한 애국열의를 거듭 높이 치하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경제강국건설에서 무산광산연합기업소가 맡고있는 임무와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기업소앞에 나서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무진장한 철광석이 매장되어있고 유리한 채굴조건을 가지고있는 무산광산은 조국의 귀중한 재보라고 하시면서 광산을 전망성있게 꾸러 세계적인 철광석생산기지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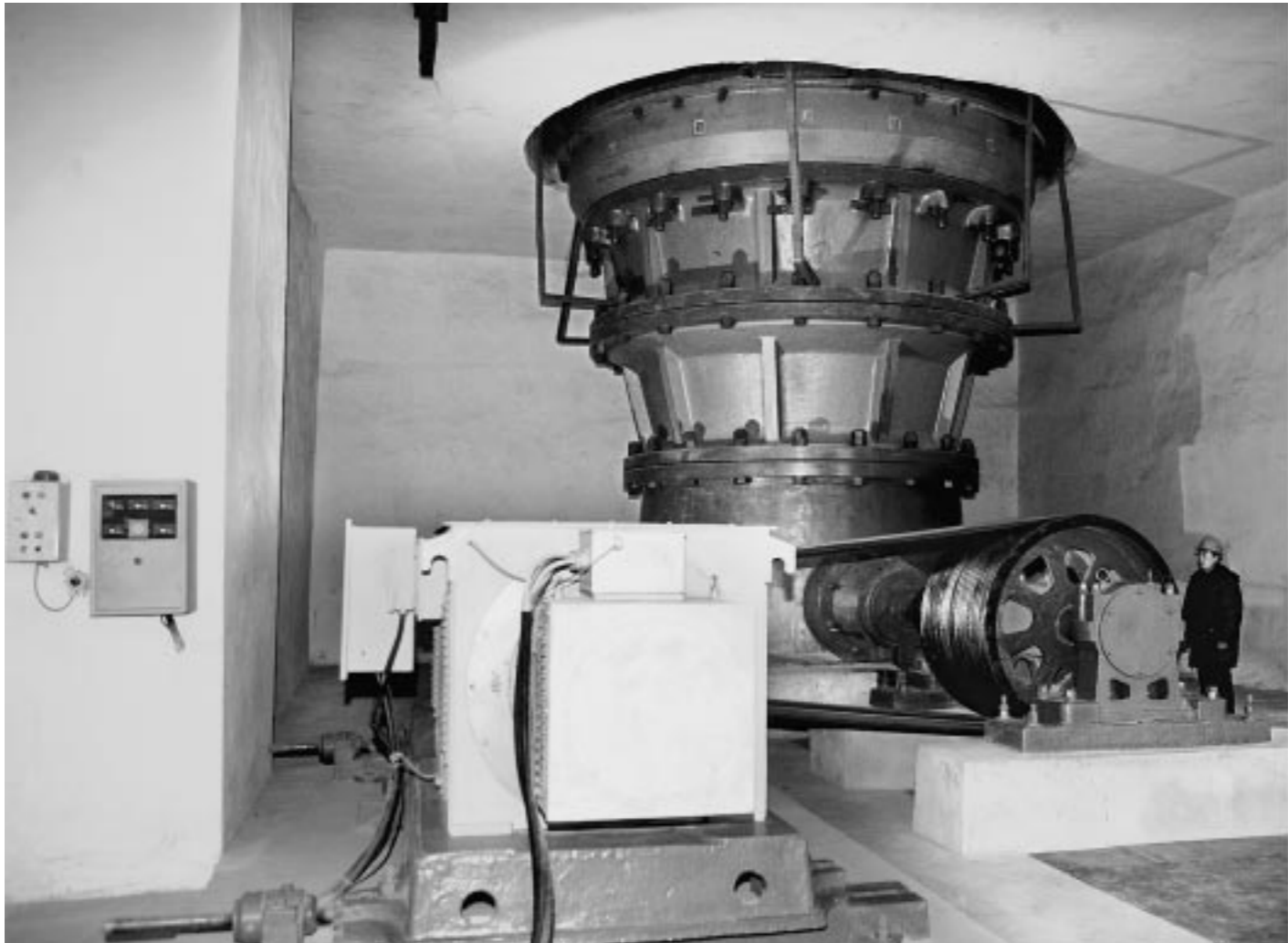
김정일동지께서는 광산을 전망성있게 꾸리기 위해서는 탐사를 적극 앞세워 더 많은 예비광량을 확보하는것과 함께 최신과학기술에 기초한 채굴대책들을 면밀히 세우고 줄기차게 내밀어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김책제철련합기업소를 비롯한 제철, 제강소들의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무산광산련합기업소의 역할에 크게 달려있다고 하시면서 광산의 로동계급은 이 무겁고도 영예로운 사명감을 깊이 자각하고 강성대국건설의 전초병, 개척자답게 자기들의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제철, 제강소들에 질 좋은 철정광을 더 많이 보내주자면 다량락광, 다량처리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진행하고있는 2호박토과쇄장과 새로운 광석과쇄장건설을 짧은 기간에 끝내며 광산의 개진현대화를 계속 힘있게 내밀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철정광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기 위하여서는 굴착기, 착정기, 자동차를 비롯한 모든 채굴 및 운반설비들의 대형화를 적극 다그치는 동시에 그의 가동률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2 면 으 로 계 속



위 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무산광산연합기업소와 무산식료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1 면에서 계속

김정일동지께서는 여러가지 대형기계 설비들을 많이 가지고있는 무산광산연합기업소의 경우 설비관리, 기술관리는 특별히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모든 광부들이 인민군군인들의 무기에호정신을 따라배워 기대들을 노동자와 같이 애호관리하며 공무직장의 역할을 높여 설비보수에 필요한 부속품들을 제때에 충분히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무산광산연합기업소에서 새 기술을 받아들여 모든 기계설비들의 효율을 부단히 높임으로써 거대한 생산잠재력을 최대도로 발양시켜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이어 광부들이 즐겨 리용하는 인차대기실을 돌아보시였다.

기업소에서는 지난해 2월 몸소 이곳에 들리시어 광부들이 인차를 타고 광구로 올라가기 전과 하루일을 마친 뒤에 여기서 차도 마시고 여러가지 문화사업을 할수 있게 하라고 하신 아버지장군님의 가르치심을 받들고 인차대기실을 훌륭한 봉사 및 문화교양장으로 꾸려놓았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광부들이 한겨울에도 뜨끈한 차와 콩우유를 마시면서 TV와 신문, 잡지들을 보며 즐거운 문화정서생활을 하고있는데 대해 매우 기뻐하시면서 광부들을 위해 좋은 일을 한 기업소 일군들의 수고를 치하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기업소에서 자체로 건설한 철산원을 돌아보시면서 광부들의 생활을 친어버이심정으로 따듯이 보살펴 주시였다.

기업소에서는 종합적인 편의봉사기치인 철산원을 현대적으로 훌륭히 건설하고 부업지에서 생산한 농축산물을 효과 있게 리용하여 노동자들의 문화정서생활과 식생활향상에 큰 도움을 주고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목욕탕, 리발실, 미용실, 식당 등 창광원에 못지 않게 일들하게 꾸려진 내부시설들을 돌아보시고 철산원은 생산을 보기 전에 노동자들의 건강과 생활을 먼저 볼데 대한 우리 당의 요구가 훌륭히 구현된 자랑랄만 한 편의봉사시설이라고 하시면서 무산광산연합기업소에서 최근년간 종합목장을 비롯한 후방시설들을 잘 갖추어놓고 그 운영을 짜고들어 광부들의 식생활향상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온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기업소에서 생산의 주인인 노동자들에 대한 옳은 판점을 가지고 후방사업을 면밀히 짜고들고 이악하게 노력함으로써 몇해사이에 놀라운 전변을 이룩하였다고 하시면서 무산의 광부들은 추운 겨울에도 로천에서 일하는것만큼 기업소의 일군들은 이들의 사업과 생활에 특별한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후방사업은 곧 정치사업이라고 하신 아버지수령님의

교시를 명심하고 노동자들에 대한 후방공급사업에 계속 큰 힘을 넣음으로써 광부들에게 보다 훌륭한 생활조건을 마련 해주어야 한다고 간곡히 당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무산광산연합기업소의 로동계급이 당의 위업을 앞장서 받들어온 선봉부대답게 앞으로는 자기의 본분을 다해나감으로써 강성대국대문을 열기 위한 총공격전에서 또다시 영웅적기개와 필승의 기상을 떨치려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무산식료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무산군에서는 나라의 도처에 삼림포 특산물공장과 같은 현대적인 식료공장을 건설하여 인민들에게 질 좋은 식료품들을 충분히 공급할데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말씀을 높이 받들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발휘하여 1년사이에 식료공장건설을 끝내고 생산을 시작하였다.

공장에서는 지금 사랑, 파자, 빵, 기름, 물엿, 콩우유, 식초, 산나물장조림, 청량음료 등 갖가지 식료품을 생산하여 군내주민들과 무산광산의 광부들에게 공급해주고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공장전경도앞에서 해설을 들으신 다음 생산공정들을 일일이 돌아보시면서 건설정형과 생산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갖가지 식료품들이 쉬임없이 쏟아져나오는 광경을 바라보시면서 인민들의 식생활에 크게 기여하게

될 식료공장을 군자체의 힘으로 훌륭히 건설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철저히 지방원료원천에 의거하여 식료공장을 건설한것이 마음에 든다고 하시면서 비록 크지 않은 공장이지만 군안의 인민들의 식생활향상에 큰 도움을 주는 실리있는 식료생산기지를 꾸리고 그 운영을 실속있게 하고있는데 대하여 치하하시면서 군의 일군들과 공장로동계급의 인민에 대한 헌신적 복무정신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여 군안의 인민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공장관리운영에서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최근년간 도처에 현대적인 식료공장들이 수많이 건설되어 크게 은을 내고있다고 하시면서 모든 단위들에서 굳건히 조성된 식료공업토대를 잘 활용하면 우리 인민들의 식생활에서는 획기적인 전환이 일어나게 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기초식품을 비롯한 식료품들은 인민들의 식생활에서 절실히 필요한 필수품이기때문에 인민의 총복인 우리 일군들은 이 사업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식료품생산을 정상화하는데서 기본열쇠는 원료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는것이라고 하시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군안의 지방원료원천을 모조리 탐구동원하는것과 함께 원료기지조성 사업을 전망성있게 진행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식료공장은 인민들이 먹을 식료품을 다루는것만큼 위생환경에도 특별한 주의를 돌려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공장에서 식료품생산을 더욱 높이기 위해서는 생산공정의 현대화, 과학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무산식료공장의 일군들과 노동자들이 자기앞에 맡겨진 영예로운 사명을 원만히 수행함으로써 식료품상점들에 여러가지 식료품들을 가득히 채워놓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군안의 인민들에게 맛 좋고 영양가 높은 식료품이 더 많이 안겨지게 될 때 다시 찾아오시겠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무산광산연합기업소와 무산식료공장의 전제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사나운 눈보라 세차게 휘몰아치는 강추위도 마다하지 않고서도 머나먼 최북단에 자리잡고 있는 자기들의 일터에 찾아오시어 한없는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고마움에 솟구치는 격정을 누르지 못하면서 장군님께서 제시하신 전투적과업을 빛나게 관철하여 강성대국건설위업실현에 적극 기여할 불라는 맹세를 다지였다.

본사정치보도반



위 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무산광산연합기업소와 무산식료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위 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희천발전소건설을 적극 지원한 일군들과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였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희천발전소건설지원에서 모범을 보인 일군들과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였다.

경제강국건설의 중요전선인 희천발전소 건설을 힘있게 다그침에 대한 당의 호소를 받들고 돌격대에 탄원한 철도성 산하 단위 회계원 김성희, 락랑구역식품종합상점 노동자 오정희, 청진철도국 자체상사 책임부원 리순옥은 어렵고 힘든 일에 앞장서면서 지원사업을 잘하였다.

대동강구역식품종합상점 대동강물고기상점 집장 최금숙은 여러차례 희천발전소건설장을 찾아가 지원물자들을 안겨주며 돌격대원들의 로력투쟁을 고무해주었

으며 사리원철차상업관리소 지배인 김성순은 새로운 천리마속도, 최고속도창조자들을 물심방면으로 도와주었다.

중앙우편출판물체송국 노동자 리금화, 향만루식당 노동자 최광호는 선군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을 함께 일떠세우는 심정으로 마련한 후방물자를 건설장에 보내주었으며 대동강구역편의봉사사업소 소봉사진관 사진사 리춘숙, 평양고려호텔 노동자 김민화도 애국의 한마음안고 이 사업에 적극 참가하였다.

식료일용공업성 문서원 박금희, 무역은행 황해남도지점 부원 윤경희, 평양방직공장 부원 채홍혁, 평양시교려약생산관리국 부원 김진희, 노동자 조상렬, 대동강맥주

공장 노동자 리남식, 평양기초식품공장 노동자 김옥란, 중화군원림사업소 노동자 주성철, 중구역 동흥동 50인민반 리정실, 류성동 37인민반 지학순, 38인민반 김인식, 연화1동 39인민반 동정실, 서성구역 중신동 32인민반 장호길, 대동강구역 룡마1동 27인민반 서미옥도 희천발전소건설을 돕는 일에 성의를 다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보내신 감사를 크나큰 감격속에 받아안은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강성대국건설대전의 전초전에서 폭풍처럼 내달리고있는 발전소 건설자들에 대한 지원사업을 더 잘해나갈 열의에 넘쳐있다.

본사기자

함흥시를 현대적인 로동계급의 도시로 훌륭히 건설하자 함흥 시내 건설자들과 근로자들의 쉼기모임 진행

【함흥 12월 3일발 조선 중앙통신】함흥시를 현대적인 로동계급의 도시로 훌륭히 건설하기 위한 건설자들과 근로자들의 쉼기모임이 3일 함흥에서 진행되었다.

당, 정권, 경제기관, 근로단체일군들, 건설자들, 근로자들이 모임에 참가하였다.

모임에서는 광범기 함경남도당위원회 책임비서의 보고에 이어 도인민위원회 부위원장 김성규, 함흥시당위원회 책임비서 리영태, 부래산세멘트공장 지배인 김현진이 토론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함흥시 건설모형사관을 여러차례 보아주시고 위대한 수령 김정일동지의 유훈대로 함흥시를 먼 후날에도 손색없는 현대적인 로동계급의 도시로 건설하도록 하시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들은 조선은 결실하면 한 다는 신념과 배짱을 지니고 혁명적대고조의 진군속도로 함흥시건설을 본떠있게 벌려나갈 결의를 표명하였다.

조선로동당대표회정신을 높이 받들고 건설에서 무한대의 정진력을 발휘해나갈데 대하여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희천발전소건설자들

의 투쟁정신과 기쁨을 본받아 모든 잠재력을 총동원하고 앞선 공법들을 받아들여 살림집 건설에서 새로운 속도를 창조하며 건설물의 질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집체적지혜와 창발성을 적극 발양시키고 건설장마다에서 집단적혁신을 일으키며 필요한 세멘트와 강재, 기계설비 등을 제때에 생산보장할데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그들은 부래산세멘트공장, 함흥강철공장을 비롯한 건설개건을 다그쳐 생산능력을 높이며 설계를 확고히 앞세워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함흥시를 수림화, 원림화하기 위한 사업을 군중적운동으로 롱이 크게 벌리며 모두가 애국의 한마음안고 건설을 힘있게 지원할데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명도를 충직하게 받들고 건설에서 기적과 위훈을 창조함으로써 어버이수령님의 념원이 현실로 꽃핀 사회주의강성대국을 하루빨리 일떠세우는데 적극 이바지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모임에서는 결의문이 채택되었다.

정론

경공업전선 더기세 좋게 앞으로!

소리치며 잘살 날이 오고있다. 번이 러지고 리상이 꽃피던 지난해의 격동적인 대비약에 이어 올해에도 총공세의 열풍이 세차게 몰아치는 속에 매일같이 좋은 일, 눈부신 기적들이 계속 생겨나고있다.

마침내 번이 러지기 시작했다!

이해의 주공전선인 경공업전선이 승리의 북소리를 요란하게 울리며 기세좋게 내달리고있다.

얼마전 통성식료공장을 찾아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현대적인 설비들을 거쳐 쏟아져나오는 특색있는 각종 식료품들을 커다란 기쁨속에 보시면서 이것이야말로 기초식품생산에서 최첨단을 돌파한 것과 같다고, 대단히 만족하다고 거듭 말씀하시면서 앙양된 기세, 그 본래로 경공업의 전 전선에서 계속 비약을 일으켜나갈때 대한 광명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맑고 푸른 내 나라의 하늘아래 마침내 행복의 오곡백과가 무르익고있으며 경제강국건설을 위한 마지막전선투루에 확고히 들어선 내 조국의 거창한 현실을 가슴벅차게 안아보게 된다.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이는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평생념원이였으며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이고 의지입니다.》

올해 총공세는 희망의 두개 전선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우리 인민들을 하루빨리 잘살게 해주시려고 첫 현지지도로 최첨발전선건설을 찾아주신데 이어 평양밀가루공공장을 비롯한 경공업공장을 투입없이 찾으시며 경공업혁명의 포성이 어서시나 힘차게 울려나오게 해주신 우리 장군님께서였다.

눈보라치는 겨울과 꽃피는 봄날에도, 찌는듯 한 무더위가 계속되는 여름에서 이해가 다 저물어가는 오늘날까지 두대산물창성에서 강서의 약속공장으로 끊임없이 강행군길을 이어가시는 우리 장군님의 헌신의 자욱자욱을 따르며 누구나 격정에 목매었다.

보기만 해도 멋쟁이이고 쏟아지는 제품마다가 화려한 통성의 식료생산기지에와보시라.

아담하면서도 깨끗하게 꾸러진 작업장마다에서 산뜻한 위생복을 입은 노동자들이 현대적인 설비들이 우리 제품을 척척 만들어내는 모습은 얼마나 자랑스러운가. 그 종류가 다양하고 질적수준이 또한 세계적인 수많은 식료제품들이 생산되는데는 물론이고 함께 우리를 특별히 흥분시키는것은 이곳 기술자들과 로동계급이 한다는 나라들에서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새로운 고급간장을 개발하고 완성한것이다.

여기서는 고기는 한점도 쓰지 않고 뼈가루만 가지고서도 닭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소고기, 닭고기 등 별의별 진귀한 맛을 다내는 고급간장들이 나오고 그 멋진 간장병마단에서는 우리의 상포가 보기 좋게 찍혀지고있다.

소금가공만 놓고보아도 지난 시기에는 상상도 못했던 각종 새로운 소금들이 흘러나와 사람들의 행복을 자아낸다. 이름마치듯 향기로운 맛과 독특한 정취를 자아내는 눈꽃소금이며 깨끗고, 고추소금, 맛기소금, 후추소금, 칼슘소금, 마늘소금, 요드소금, 분무소금이 그렇게되어 흘러나온다.

한 공정에 들어서면 또 세 제품이오 다음공정을 돌아보면 또 놀라운 기술과 현대적인 가공설비이나 기법과 정란도 같없이 이어져 누구나 날것을 쉽게 먹지 못한다. 한쪽에서 요그르며 졸인것과 같은 젓제품들이 흘러나올 때 또 다른쪽에서는 보기도 좋고 먹기도 좋은 햄과 맛 좋고 영양가 높은 고기가루가 땀시있게 포장되어 그득그득 쌓인다.

이제는 우리의 경공업이 세계적능력에 올라와있다. 드디어 경공업에서 번이 러지기 시작했구나 하는 심심이 저절로 북받친다.

최근년간 경공업부문에서는 전례없는 대비약이 어디서나 연속적으로 일어나 인민들이 기뻐하고는 나라가 흥성거린다.

평양곡산공장과 평양밀가루공공장만 해도 불과 몇개월전 공장에 와본 사람들이 이를 다들 못알아듣는 정도로 제철식비율은 온대간대없이 사라지고 CNC화가 실현된 생산공정들에서 맛좋은 당과류들이 계속 나올수 있는 담보는 날이 확고해지고있다. 수도의 집집마다 골고루 차례져 누구나 맛을 보면서 이제 정말 우리가 생산한것이 맞는가 하고 의심할 정도였던 알사탕이며 과일사탕, 죽색사탕, 식빵들은 다름아닌 이 현대적인 공정들에서 생산된것이다.

웃음꽃피는 상점매대에서도, 집집의 식탁마다에서도 《우리 제품이 제일이고 으뜸이다.》 《우리것이 제일 맛있고 우리것이 제일 보기 좋다.》는 공지에 넘친 인민의 목소리가 울려나오고 그것은 점차 날이 흥하는 사회주의 우리

살림을 뜻하는 즐거운 생활언어로 되고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이처럼 넘친하시던 리상들이 하나하나 실현되고 머지 않아 상상에 부럼없는 우리의 제품, 우리의 식품을 마음껏 향유하게 될 되는것은 기쁨과 희망으로 가슴설레이며 인민들은 우리 장군님과 어머니 우리 당, 사회주의 우리 제도에 대한 끝없는 고마움과 감사의 정에 넘쳐있다.

지난 시기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일대 혁신, 전면적비약이 일어났다.

우리가 경공업에서 확실히 변혁이 일어나고 바야흐로 소리치며 잘살게 될 날이 눈앞에 오고있다고 말하게 되는것은 우리 경공업의 기초와 토대가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전면적으로 완벽하게 다져진데 있다.

경공업에서 일어나고있는 가장 큰 번이 바로 이것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난해 삼일포식산물공장을 현지도하시면서 여기는 식료종합이고 바로 이것이 경공업의 기초의 기초라고 하시면서 경공업혁명의 불씨를 지펴주시었던 그때로부터 불과 1년 남짓한 기간에 우리 경공업의 모든 부문에서는 참으로 눈부신 성과들이 일어났다.

수도만이 아니라 《삼일포》의 불씨가 낳은 전국도처의 종합식료공장들에서는 당과류며 절임류, 농토산물, 각종 음료들과 보약제들을 비롯한 식료품들과 가공제품들이 자동흐름선을 따라 흘러나오게 되어있다.

우리 나라의 경공업공장들을 분야별로 한번 살펴보자.

방직공정들에서 필원이 나오는 천류로부터 시작하여 치출, 치약, 소금, 간장과 같은 세소상품과 기초식품에 이르기까지 모든것을 다 국내에서 능히 생산할수 있는 완벽한 구조를 가진데다가 그것이 우리의 원료, 우리의 자원에 의거하고있는 것으로 하여 안정된 생산성과 확고한 전망을 가지고있다. 기계공정의 CNC화가 실현되고 우리의 강력한 중공업의 확고한 뒷받침을 받고있는것으로 하여 경공업의 토대는 오늘날만아니라 래일도 억년 끄떡 없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오백년부리 우리 인민들의 먹고 입고 쓰는 문제를 우리 힘으로 해결하기 위해 한생의 심혈을 깎고 리 기울여 담아주신 경공업의 물질기술적토대가 위대한 장군님 시대에 와서 기근상식과 날들이 거친 단계를 뛰어넘어 이번도약으로 21세기의 요구에 맞는 자기의 면모를 당당히 시위할수 있게 되었은것은 얼마나 의의깊은 일인가.

이제는 자부할수 있다. 실사 그 어떤 정치과동, 경제과동이 세계를 휩쓴다 해도, 그 어떤 봉쇄와 제재가 가해진다 해도 우리 인민들의 먹고 입고 쓰는 생활상문에서는 끄떡없게 되어있다는 생각으로 우리 마음은 든든해지고 자신은 뻔뻔해진다.

토대가 든든할 때만이 전면적총공세, 일대 변혁이 터질수 있다.

지난해 풍부한 잠재력과 확고한 기초를 축성한 우리 경공업은 올해에만 해도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놀라운 기적들을 연속 창조하며 시대를 들었다놓았다.

어머나 우리 당의 창건 65돐을 맞으며 경공업부문에서 최근시기에 이룩한 성과들에 기초하여 내놓은 수십, 수백가지의 제품들은 사람들의 경탄을 자아냈으며 인민들에게 커다란 신심과 고무력을 안겨주었다.

우리의 기술, 우리의 원료로 생산되고 우리의 국규, 우리의 상표가 찍힌 각종 내의류들과 고급양말, 뽀시같은 신발들은 더 말할것도 없고 여러가지 종류의 일용품들은 무엇이든 마음만 먹으면 훌륭하게 만들어내고있는 우리 경공업의 대단한 위력과 발전면모를 그대로 보여주었다.

지난 시기 계속 활성화되어 잘 나가던 단위들은 더 기세좋게 높은 단계에로 뛰어오르고 한걸음 뛰엄뛰어든 부문들은 대고조의 톱마에 올라 혁신의 기발을 들고 앞장에서 나아가고있으며 수도는 더 말할것도 없고 동해지구에 가도, 서해지구에 가도, 조국의 북변 한끝에 가도, 두대산골의 자그마한 지방산업공장에 가도 어디서나 경쟁적으로 번을 일으키고 있다.

이제는 방직부문에서 새로운 혁신으로 부흥호를 불렀다면 오늘은 식료공업 부문에서 사람들이 기쁨을 주는 세 소식으로 그에 화답하고있으며 자강도와 평안북도에서 수백가지의 제품을 만들어내면 이번에는 또 황해북도와 함경남도에서 눈부신 혁신을 이룩하여 딸고 데로 온 나라를 경공업전선의 새 소식으로 흥성인다.

지금도 우리 장군님께서 현대적으로 꾸러진 일터에서 세계적인 수준을 확고히

디디고 오른 우리의 제품이 쏟아져나오는 것을 보시면서 대단하다고, 이것이 바로 최첨단을 돌파한것이라고 한없는 기쁨에 넘쳐 하시던 그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세차게 울려주고있다.

오늘날 경공업에서 일어나고있는 진짜 번이 무엇인가를 알자면 짧은 기간에 세계적수준을 돌파하면서 계속 기세좋게 나가는 우리 경공업의 현대화의 높이와 그 위력을 보아야 한다.

우리 인민들은 더 말할것도 없고 세계의 전문가들과 외국인들의 땀속에서도 최근에 우리 나라에서 생산되고있는 경공업제품들이 점차 세계적수준에 이르렀고있으며 그 질적수준이 결코 남만 못지 않다는데 대하여 놀라움을 표시하고 진심으로 탄복하고있다.

경공업은 그 어느 부문보다 현대화와 문명수준에 대한 요구가 높고 그 경쟁력이 대단하다.

어느 단위에 가나 단순한 개건이나 량적수요만을 충족시키기 위한것이 아니라 우리 인민들도 발전된 나라를 못지 않게, 그들이 부러워할수 있는 그런 문명하고 멋있고 으뜸가있는것을 향유할수 있게 최첨단목표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으로 되고있다.

이제는 지난날의 때를 잊지 못하겠, 지난날의것을 답습하는것, 다시말하여 새롭고 발전적인것, 최첨단의것이 아닌것은 당과국민을 배반하고 있다. 그러므로 인정을 인정하지 않는것이 하나의 흐름으로, 생활로 되고있다.

통성에서 이번이 세계적인 수준의 간장 생산을 과학화하고 정상화할수 있게 된것, 평양곡산공장을 비롯하여 많은 단위들에서 생산공정의 CNC화를 실현한것과 우리 경공업이 세계를 향하여 눈부시게 발전하고있다는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뚜렷한 화폭들이었다.

머지 않아 세상사람들은 놀라운 눈으로 보게 될것이다. 세계적수준과 문명을 확고히 갖춘 우리 경공업의 표준기업소, 본보기공장, 현대적인 생산공정들에서 조선의 이름으로 불려오는 현대적이고 최첨단 제품들이 쏟아져나오게 되고, 옥류판도, 주체철, 주체비료와 같은 봉사망들에서 칠감상어로리, 자라로리, 연어로리, 메추리로리를 비롯한 백반장자들이나 먹을수 있는 최고급식품들을 평범한 우리 인민들이 누구나 맛보게 될 때 우리의 생활에서는 강성부흥이러량의 흥겨운 노래소리가 저절로 울려나오게 될것이다.

사회주의 우리 집의 살림이 더욱 풍성해지고 인민의 웃음소리가 거리와 창가마다 가득할 래일이 오리라.

하늘은 가없이 맑고 푸르러 사람들의 마음에 안겨있고 깃털과 제도가 하도 좋고 모두다 행복하게 사는데다가 이제 먹고 입고 쓰는 소비품적격까지 없게 되면 그것이 우리가 꿈에서도 바라던 사회주의 리상촌이다.

변영의 대문은 확고히 열리기 시작했고 우리는 벌써 거기에 행복의 문扉를 달고있다. 우리는 경공업에서 번이 오는 소식을 강성대국의 대문이 열리는 소리로, 우리가 그처럼 희망에 넘쳐 그려보던 무궁변영의 래일이 아주 가까워 다가왔다는 환희로 가슴벅차게 새겨안는다.

인민은 관하여 목매고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한평생 넘친하신 그 리상을 하루빨리 현실로 꽃피우기 위하여, 우리 인민을 행복의 꽃밭에 앉히고 세계가 우리러보는 만큼과 영광을 마음껏 누리게 해주기 위하여 우리 장군님 헤쳐오신 강행군전랑이 그 뜨겁게 어려와 누구나 눈물을 적시고있다.

현대화된 공장들이 날이 어두어지니 일어서고 지난 시기에는 생각도 못했던 멋있는 우리 제품들이 쏟아지는것을 볼 때마다 인민들은 기쁨과 환희에 앞서 우리 장군님! 하고 격정을 터뜨리며 승연한 감정에 휩싸인다.

최근에도 아진봉을 땀으로 적시며 그 수많은 생산공정들을 하나하나 다 굽어보시면서 더 볼게 없는가, 아니면 마저 돌아보고 자강도 공장의 기술자들과 로동계급속에 오대몽단 게신 우리 장군님이시었고 저녁이들이 깃들 때까지 현장을 뜨지 못하시면서 새로 개발한 제품들과 설비들을 오대몽단 보아주시며 이렇게 좋은 일을 한다던 자신께서는 천 리걸이라도 찾아오셨다고, 인민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하는 사람을 자신께서는 제일 사랑한다고 절절히 말씀하신 우리 장군님이다.

우리 인민은 누구보다 제일 잘살아야 하고 제일 행복해야 하며 제일 문명한 생활을 누려야 한다.

바로 이것이 어버이수령님의 뜻이고 우리 장군님의 리상이다. 인민이 바라보는것이라던 저 하늘의 별도 따다 안겨주고 돌우에도 꽃을 피워야 한다는것이 우리 장군님의 소원이며 그저 풍족하게 잘 먹고 잘 입는데만 그치는것이 아니라 북을 누르며 세상최대의 락을 누리게 해야 한다는것이 우리 장군님의

리상이고 높은 요구이다.

그러한 우리 장군님시기에 그 어느 곳을 찾وسی여도 인민이 좋아하는가고, 인민이 좋아하면 합격이라고 늘 말씀하시는것이 하나의 새로운 기술을 발명하고 새 설비를 만들어도 그것이 최첨단을 돌파한것인가 아니면 이미 있던것인가고 엄격히 물으시고 세계적인 우리의것이 될 때만이 커다란 만족과 기쁨을 표시하신것이다.

북방의 크지 않은 신발공장에서 새로 만든 솜장화를 보시면서도 후날 자신께서도 여기에 오면 꼭 신어보셨다고 하시고 옥류판은 물론 소박한 로동자식당에 들리시여서도 국수맛, 빵맛, 소금맛까지 몸소 보아주시며 그 질을 최상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도록 결집결을 보살펴주신 우리 장군님이다.

올해 장자산종합식료공장을 찾아주시는 때에도 우리 장군님께서는 보기만 해도 먹음직스러운 떡국대며 각종 절임 제품들을 보아주시고서서 너는 물론 남성들도 좋아한다는데 노래에도 있지만 로동당세상은 정말 좋은 세상이라고 하시며 더 높은 비약의 나래를 달아주시고서야 공장을 떠나셨으니 정녕 인민의 행복을 위하시는 그이의 사랑과 헌신의 열정은 어디인가.

우리 장군님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일군들에게 세상에 우리 인민만큼 훌륭한 인민이 없다고, 우리 일을 더 잘해야 수령님께서 한평생 아끼고 사랑하신 인민을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인민으로 내세우려고 간절하게 러놓으시던 그 진정이 우리의 가슴을 울린다.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을 거어이 실현하시려, 어버이수령님 한평생 사랑하신 인민의 행복을 수호하고 끝없이 꽃피워주시려 우리 장군님께서는 선군의 총대를 앞세우고 창조와 변영의 지침길을 열어 가시겠다고.

지금에 와서 보면 장군님의 그날의 전진길은 방직공정의 구내길과 토지정리의 통용늪던 험등벌과 잇닿아있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온 나라의 대경사를 안아온 비날론숨을 보시며 그렇듯 기뻐하시던것도, 주체철, 주체비료가 끝없이 폭포처럼쏟아지기를 그렇듯 간절히 바라시는것도 다 경공업의 번, 인민생활향상을 위해서가 아니던가. -30℃를 오르내리는 추위를 헤치시며 최전선에서 찾고찾으시는것도 다름아닌 행복의 불빛을 더 밝게 비추주시기 위해서이고 길에서 장제가 나오는 소식에 늘 마음을 기울이시는것도 우리 아이들에게 사랑, 파자를 마음껏 먹이고싶은 어버이심정에서이다.

우리 장군님께서 있어서 제일 행복한 순간이 있다면 인민들에게 차례질 최고급의 소비품들이 광광 쏟아진다는 소식을 들으실 때이고 제일 즐거운 시간이 있다면 그것은 인민들의 생활이 날이 향상된다는 소식을 들으실 때이다.

인민의 천만가지 행복을 위한 찬란한 리상을 펼쳐주시었을뿐아니라 그 실현을 위한 거창한 변혁의 시대를 열어주시는것은 우리 세대는 물론 후손만대까지 길이 칭송할 불멸의 업적이다.

허나 인민의 행복이 커가는 소리를 쫓을에서도 그리는분시기에 우리 장군님께서는 구조나 로선으로써만이 아니라 위대한 실천적모범으로 걸음갈을 로고와 심혈을 깎고리 바쳐가신다.

누구는 이 땅에서 세계적인것이 창조되는 곳, 첨단제품들이 생산되는 경공업 공장들에 가보라.

어느 하루 우리 장군님께서 다나가지 않았던 곳이 있고 어느 제때, 어느 설비 하나 그이의 가르치심과 세심한 지도가 깃들지 않았는지 있는가.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최고기준, 최고목표를 직접 구상하시고 그 실현방도를 제시해주시느라 담모르게 바치으신 낮과 밤은 얼마나 많으리던 자신께서 직접 나라 경공업기지를 하나하나 찾아가시며 비약으로 나래치도록 힘과 용기를 안겨주시니 인민위해 바치으신 헌신의 그 자욱자욱은 무수한 저 하늘의 별들에도 비기지 못하고 천만자루의 붓으로도 다 전하지 못할것이다.

올해의 뜻깊은 10월 대동강기슭에 꽃피는 사랑의 이야기는 지금도 사람들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준다.

그날은 바로 일요일이었다.

온 나라 인민이 당대표자회의 당창건 65돐을 기념해 경축한 크나큰 기쁨과 환희에 넘쳐있을 때 그 누구보다 분망하신 우리 장군님께서 한순간의 휴식마저 미루어가지며 옥류판에 새로 건설된 로리전문식당을 찾아주시길 누가 애타오랴.

인민을 위해 또 하나의 훌륭한 창조물을 마련해주신 위대한 장군님때 정말 고맙습니다라고 인사를 드리는 일군들에게 우리 장군님께서 동무들이 내게 감사의 인사를 할것이 아니라 봉사자들답게 인민으로부터 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참으로 뜻깊은 말씀을 하시었다.

인민의 감사를 받으라!

바로 이 말속에 인민에 대한 우리 장군님의 하늘같은 사랑과 넉넉이 함축되어있으며 우리 일군들이 지나가나 잊지 말고 관찰해나가야 할 인민에 대한 헌신적부주의 근본척도와 높은 요구가 담겨져있다.

새로 개건된 향만루식당을 비롯하여 인민들의 기쁨이 날이 꽃피는 봉사망들은 물론 화장품공장으로부터 코스모머리핀까지 생산되는 현대적인 직장에 이르기까지, 수도의 방직공장으로부터 두대산간의 자그마한 식료공장에 이르기까지 그이의 헌신은 뜨겁게 새겨져있어 이 땅은 그대로 우리 장군님께서 인민을 위하여 적어간 눈물겨운 헌신의 자욱자욱이며 그 증언자이다.

그렇게 한치한치, 그렇게 한걸음 또 한걸음 다가온 오늘의 변혁이 그렇게 천신만고속에 하나하나 꽃피고 가꾸어간 우리 행복의 열매이다.

그래서 인민은 식탁에 오르는 소금 한알, 간장 한병도 무심히 보지 못하는것이며 그 사랑에 목매어 섰는 수저를 들지 못하는것이다. 대고조각적인 매 전선마다 있어 강성변영의 알찬 열매를 주렁지을 불같은 결의를 다지는것이다.

박자에 또 박자를 가하여 경공업의 새로운 높은 목표들을 끊임없이 점령해나가자, 이것이 당의 요구이며 대고조로 들끓는 시대의 목소리이다.

올해에 농업과 함께 경공업에 모든 힘을 집중하여 이룩한 혁신적인 성과들은 우리 인민들을 끝없이 고무해주고있으며 이것은 더 높이, 더 빨리 내달리게 하는 새로운 투쟁목표를 제시해주고 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최근 현대화된 경공업 공장들을 돌아보시면서 우리는 이룩한 성과에 자만하지 말고 경공업에 계속 박차를 가하여 당이 내세운 높은 목표를 반드시 점령하고 우리의 리상을 하루빨리 실현해야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었다.

자기것으로 얼마든지 세계적인것, 세계를 압도하는 최첨단제품들을 만들수 있다는 훌륭한 모범은 이미 창조되었다.

온 나라를 흥분케 했던 《명에서 350가지》라는 《삼일포》의 기적은 벌써 옛날로 되었다. 그 주인공들이 그 350가지에서 또 비약하여 우리의 원료로 식료품의 가지수를 수십종이나 더 늘였을뿐아니라 본래였던 공장규모와 맞먹는 새로운 하나의 실적을 내오고 모든 공정의 현대화를 실현하였을 때 두대산간 창성땅에서는 또 어떠한가.

현지지도의 날날 우리 장군님께서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신것처럼 지금 여기서의 지방원료원천에 의거한 기초식품, 산나물장절임 등이 생산되고있으며 특히 산과실단물들은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만큼 질이 높다.

그들이라고 특수한 환경, 특수한 자원을 깔고있는것이 아니다.

원료원천은 얼마든지 있고 자기것으로 일떠설수 있는 가능성은 무한대이다.

따라 막을것은 보물산으로 보일수 있고 보물산도 막을산으로 보일수 있다.

우리 나라는 산도 강도 바다도 온통 보배로 가득차있다.

예로부터 세상사람들이 부러워한것처럼 우리 나라에서는 귀한 약재들과 산과실, 산나물을 얼마든지 거두어낼수 있으며 계절도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나뉘어져 있어 사시절 자랑도 많다.

약수와 온천은 또 어떠한가.

얼마전 강서의 약수공장을 찾으신것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나라 약수분포도를 보아주시면서 우리 나라는 약수원천이 대단한 나라라고, 세상사람들이 이것을 부러워하고있었다고 하시었다.

가는 곳마다 자원이든 보이는것마다 천연원료일전대 여기에만 의거해도 우리의 경공업은 더 크게 소리치며 그 어느 단위나 얼마든지 더 높이 비약할수 있다.

모두다 자기 고장, 자기 부문, 자기 단위에서 원료원천을 끊임없이 탐구동원하자.

어제는 주체철, 주체비료, 주체식수와 더불어 인민경제 주요부문의 로동계급이 본래를 보았다면 오늘은 경공업전선에서 마땅히 기대를 뒤흔드는 산출림의 주인공, 경공업의 번을 부르는 선구자들이 나타나한다.

최악한 자기 고장을 육도로 전진시키고 끝내내 알곡증상을 안아온 《산출림》의 황성철이처럼 제명에서 제것을 가지고 계는 하늘은 행복의 열매를 안아오는 사람만이 손조 시대가 부르고 인민이 사랑하는 애국자이다.

자기 자원, 자기 식, 자기 힘에 영원한 창조와 기적, 승리와 변영이 있다.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은 세계를 보라!

오늘날 우리 경공업의 생명선은 바로 이것을 틀어쥐고나가는데 있다.

최첨단들과 바로 우리 수령님께서

펼쳐주신 황금산의 력사가 계속 이어지게 하는 결정적돌파구가 있으며 우리 경공업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하루빨리 세계적수준에 올려세울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있다.

영광의 그날 발전된 몇몇 나라들에서만 생산할수 있다고 하던 고급간장을 우리 식대로 독특하게 개발한 자기들의 공로를 높이 평가해주시는 위대한 장군님께 통성식료공장 로동계급이 공지에 넘쳐 말씀드린 진정의 로로는 무엇이었던가.

— 장군님, 정말 해보니 별것이 아니었습니!

처음에는 고기가루를 생산하다가 그것으로 간장을 만들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착상으로부터 시작된 최단시제품개발은 공로 높은 변혁이여 마침내 성공으로 이어졌다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며 대단하다고, 누구나 여기 와서 이 동무들에서 배워야 한다고 기쁨을 금치 못해 하시었다.

최첨단목표를 점령한 우리의것만이 세계적인것이 될수 있고 강성대국리상선에서 살게 될 우리 인민의 생활적요구를 충분히 만족시킬수 있음은 그들의 투쟁이 실천으로 증명해보이였다.

시대의 이 요구에 발맞추어 이제는 통성식료공장 로동계급이 선두에서 나아가고있던 오늘은 방직, 식료, 신발, 일용 등 경공업의 전 전선의 로동계급이 총열기해나갔다.

현대적인 유엔창대기들을 그 흔히 장비된 평양방직공장만 놓고보아도 지금 여기서의 든든한 물질기술적토대에 의거하여 또다시 새로운 씨실가위장치개발에 성공하였으며 현지도단위인 혜산신발공장과 원산구두공장에서조차 사출기와 제봉기의 CNC화를 실현하여 가법고 변이는 신발들을 생산하고있다.

잡도리부터 달랠아 하고 안복부터 높이아 한다.

누구나 첨단기술의 소유자, 세대의 발명가가 되자.

어디서나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과감히 벌이고 어느 단위나 기존관념을 버리고 시대의 요구에 맞는 새것을 부단히 탐구하고 개발할 때 우리 조국의 부, 우리 행복의 재보는 그 얼마나 늘어날것인가.

나라에서는 우리모두를 무료로 공부시켜 정보시대를 활보할수 있는 나래를 열어주시었다.

일군들로부터 로동자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받은 교육, 우리가 배운 지식, 우리가 쌓은 경험, 우리의 진진한 탐구정신이면 세계를 돌파하기에는 충분하다. 무엇이든 마음먹기만있고 분발하기만이다.

빈말로 끝나는 맹세, 결실없는 땀으로 충성을 말하지 마라.

우리 당의 총적인 작전도의 화살표가 경공업전선을 가리키고있는 지금이야말로 실지로 인민들이 덕을 볼수 있는 충실한 열매를 내놓아야 할 때이다.

열매가 없이, 실적이 없이 애국을 말하지 마라.

조전태발, 원료타발만 하면서 앉아몽개는 사랑, 행복의 열매가 차례지기만을 기다리는 구경꾼들은 우리 시대에 숨쉬며 살 권리가 없다.

웃음꽃을 여는 열쇠가 우리들 매 사람의 손에 쥐여져있을수 누군들 분발하지 않고 창조와 주인공이 되지 않을수 있겠는가.

오늘의 진짜충신, 진짜애국자는 누구인가.

인민생활향상에서 일지리를 내는 사람, 경공업의 번을 끊임없이 일으켜나가는 사람, 자기 땅에 밟아도 눈은 세계를 보며 부단히 실현하는 사람, 우리 장군님께 기쁨을 드리고 인민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사람이다.

경공업의 변혁은 곧 우리 생활의 전면이 우리 세대는 물론 후대들이 누려갈 반복이다.

경공업에서 번이 나면 그것은 곧 행복의 대문이 열렸다는것이오 경제강국건설의 마지막도지가 점령되었다는것이오 강성대국승리의 그날이 눈앞에 보인다것이다.

오늘날 강성대국건설의 성배는 경공업전선에 달려있다.

분발하자, 박자에 또 박자를 가하자. 경공업전선의 모든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명실공히 자기의 이름, 자기의 피땀으로써 증명할수 있는 《나의 열매》, 《나의 창조물》을 내놓을 때 반복의 열매는 더 훌륭히 주렁질것이며 우리의 생활에서는 하늘은 푸르고 내 마음 즐겁다는 세상이 부름없이러의 노래가 더 크게 울리게 될것이다.

2012년까지는 불과 한해밖에 남지 않았다.

모두다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모두의 행복한 래일을 위하여 순간순간을 불같이 살자, 한생을 애국에 살자.

박 옥 경, 손 소 연

